

2026년 7월 21일

Hana FX Daily Letter

수급이 이끄는 무거운 흐름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동 리스크와 강달러에도 매도 우위 수급 여건에 상단 제한**
daily range 예상: 1,473~1,485원

■ 미-이란 간 휴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기조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다만, 수급 측면에서는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주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수급 여건은 환율 하락 기대를 강화하여 대외 리스크의 영향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47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20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8.1원 내린 1,477.9원에 마감. 장 초반,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에 1,490.6원까지 상승. 그러나 반도체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 유입 등 수급상 매도 우위로 낙폭을 키우며 1,478.4원에 주간 거래를 마칩.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위험선호 심리가 일부 되살아나자 추가 하락, 1,477.9원으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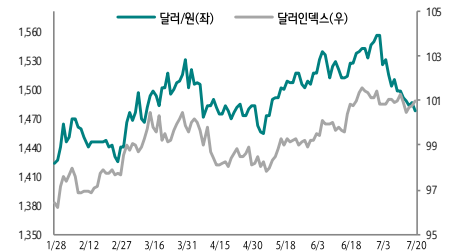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에 약세를 보이던 달러는,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강세로 전환
- (유로-달러)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에너지 수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속에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정부가 연기금의 국채 매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개입 경계감을 키웠으나, 중동 리스크와 유가 오름세에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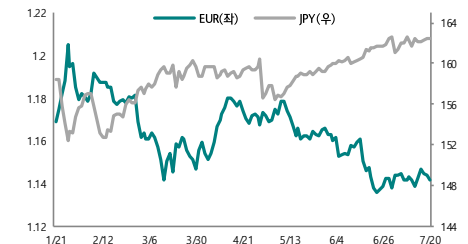
■ 최근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습을 이어가면서 다소 잠잠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 양국의 협상 기조 속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중동 갈등 격화와 함께 다시 90달러선을 향해 상승 중임. 최근까지 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들은 둔화세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시장을 짓누르던 연준의 긴축 우려도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었음. 하지만, 중동 사태가 다시 격화되며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는 또다시 짙은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음. 특히 연준 인사들은 유가가 하락하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평가하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왔음. 현재로서는 중동 사태가 초기에 종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급격한 긴축으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조만간 연준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와 경계감은 예상보다 길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 기조가 강해지더라도 한은 역시 이에 발맞춰 매파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원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글로벌 강달러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는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90.0	1,490.6	1,477.0	1,475.2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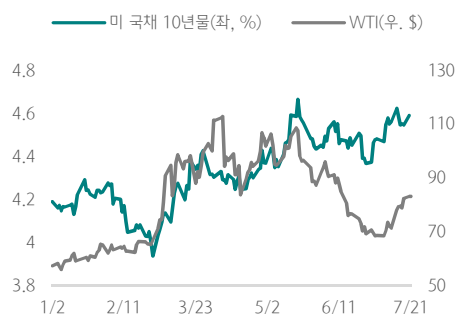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415	162.48	6.7689
전일대비	-0.0026	+0.08	-0.0089
재정환율	1,687.30	909.75	218.36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8:00	독일 7월 ZEW 경제연황지수	-77.0	-81.0
	유로존 7월 ZEW 경제심리지수	11.5	9.5

미 국채금리 및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